

일주문



자비의 쌀 100포대 전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1월 20일 자비의쌀 100포대를 서대문 13개동 불우어르신 각 5명씩에게 전달했다.



부산 범어사 사천왕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월 15일 범어사 사천왕문에서 도량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사천왕재를 봉행했다.



동안거 토요철야참선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2월 8일까지 조계사 안심당 3층에서 동안거 토요철야참선을 개최한다. (02)768-8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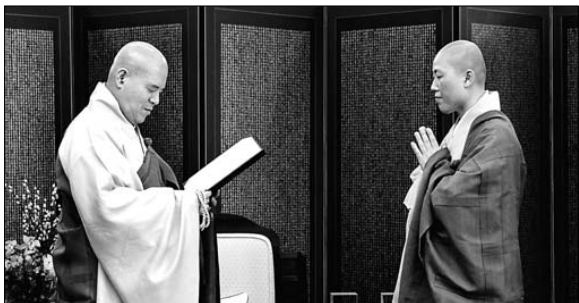
영산전 천불이운단 모집
공주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4월 26일 영산전 천불이운법회를 앞두고 천불이운단을 모집한다. (041)841-6221

김희옥 총장, 2014 한국 영향력 CEO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됐다. 김희옥 총장은 1월 1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4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글로벌경영 영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는 "지난해 QS아시아 대학평가 국제화부문에서 동국대가 국내대학 순위 3위, 아시아대학 17위를 차지하는 등 동국대의 국제화 수준이 최상위권에 오른 결과"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재무국장 우하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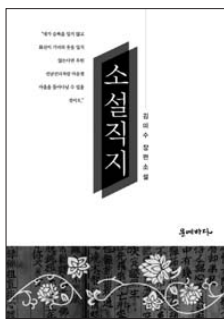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재무국장에 우하 스님을 임명했다. 신임 재무국장 우하 스님은 1991년 법전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8년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대후선원과 승연사선원, 사불선원, 천축선원, 문수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현재 화성 김상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종일 기자

“국난극복 구심점 ‘직지’ 소중함 알려요”

제 1회 청주시 직지문학상
대상 김미수 씨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직지
주인공 석찬의 일생으로 그려내
폭넓은 역사인식 높이 평가받아



해 깊어 회의한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고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제대로 된 불심을 심어주기 위해 결심한다. 이후 석찬은 흥덕사에서 살법을 하며 직지를 금숙할 자료 인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주인공 석찬은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제 상상력을 동원해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금숙할자를 인쇄하기 까지 석찬의 방황과 갈등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직지를 편안하고자 하는 결심 등을 그려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죠.” 정혜숙 기자

이렇게 김미수 작가가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는데에는 가족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천안 광덕사 신도이기도 한 그녀는 듣는 대로 좌선을 하며 에너지를 얻었다고. 특히 지난해 동국대 불교학과에 13학번으로 입학한 딸 덕분엔 도서관에서 풍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딸에게 너무 고맙죠. 딸도 제가 불교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 많이 기뻐했어요. 소설을 쓰는 동안 종교의 힘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종교의 힘이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작가는 탈북민들을 소재로 하는 소설을 써보고자 한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해왔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등의 이야기들을 소설로 풀어보고 싶어요.”

김미수 작가는 성신여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10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미로’ 당선 등단했다. 2012년작가에게 ‘새로운 환자’, 2013 신예작가에게 ‘이방인’이 선정되어 수록됐으며 2013년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랑> 단편집(공저), 2013 제 1회 직지문학상 대상 장편소설 공모에 <소설직지>로 당선됐다.

한편, 청주시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직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직지를 세계에 알리고 문학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3년 직지문학상을 제정했다. 청주직지사업담당자 김종관 씨는 “올해는 문학상의 제목인 직지에 소재가 집중되었지만 앞으로 전통을 알리고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그 폭을 확대하고 재정도 확대해 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군종교구, 국군장병에 핫팩 22만개 보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1월 14일 ‘군장병위문품보내기운동’ 1차 사업으로 전국 30개 부대에 핫팩 22만 개를 전달했다.

1억여 원의 예산으로 마련한 핫팩은 철책선과 해안선을 담당하고 있는 최전방 부대를 비롯해 서해5도 경계군부 부대, 울릉도·독도 경비 등 격오지 부대에 우선 전달됐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이날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 핫팩을 전달한 뒤 “혹한기 훈련 중인 장병들이 핫팩으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며 겨울을 잘 보내기 바란다”고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변재선 제25보병사단장 소장은 “한반도 주변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사단 장병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ARS(060)700-0108 노덕현 기자

봉은사, 필리핀 태풍피해 성금전달



서울 봉은사(주지 원화)는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행에 필리핀 하이엔 태풍 피해 돕기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기금은 봉은사와 봉은사 신도회가 각각 1,000만원씩 모은 것으로 지난해 개신대제 동안 열린 제3회 따뜻한 세상을 위한 행복나눔모금 바자회와 자비의 동전나누기를 통해 조성됐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자교수회, 장학금 기부



동국대 교수 신행 단체인 불자교수회는 1월 14일 김희옥 총장을 방문해 장학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불자교수회 회장 김대열(미술학부) 교수는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불자 교수회 임원진 회의에서 의미있는 신행활동을 고민하던 중, 회비의 일부를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의견을 모아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불자교수회는 동국대학교에 재직 중인 400여명의 교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행단체로, 연간 정기법회, 불교 경전 공부, 사찰 순례 등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청년불자 양성에 한국불교 미래 있다”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2014년 권역별 간담회 활성화 지속
성년 수계법회 도입해 신세대 포교

“대학생 불자들은 사회에 진출해 불자교수, 불자의사 등으로 활동하는 한국불교의 허리입니다. 이들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끄는 데 교수들을 비롯한 선배불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학생 포교를 위해 불자교수들이 앞장선다.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은 1월 13일 인사동 음식점 다연에서 신년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불련 새해 계획을 밝혔다.

최용춘 회장은 “2013년 교수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며 “여러 의미있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성년이 되는 대학생들에게 교수들이 주축이 돼 성년 수계법회를 열자는 뜻이 모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불련에서 추진하는 성년의날 수계식은

최 회장은 “대학생불교연합회의 경우 매년 학생들이 줄고 있다. 이제 법회도 젊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재미있게 바뀌어야 한다”며 “선신낭송회, 명상기도회 등으로 명칭에서부터 내용까지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3년 대구, 부산, 광주, 청주에서 실시된 권역별 간담회를 전북, 대구, 제주권에서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점차 참여율이 늘고 있지만 전국교수가 약 10만 명임을 감안하면 교수 불자의 활동이 참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자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회원교수들이 좀 더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불련은 2월 3~13일 10일간 인도에서 부처님 8대 성지 순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7월 초에는 순천 송광사에서 하계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노덕현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2014년 2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